

나주시 배나무 흑성병 ‘나몰라라’

실태파악 않고 방제 소홀 급속 확산

농가 70% 피해… “올 농사 포기할 판”

배나무에 치명적인 흑성병이 나주 지역에 급속도로 확산돼 피해가 심각한데도 나주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등이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5월 중순경 찾은 비로 배나무에 전염성이 높은 흑성병이 발병하기 시작해 현재는 나주 지역 과수농가 가운데 70% 이상이 흑성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반적으로 ‘검은별무늬병’으로 불

리우고 있는 흑성병에 감염될 경우 열매의 조직이 죽어 유품 들어가거나 검은 점박이 형태가 나타나 상품성이 떨어지고 일상귀에 그을을 현상이 발생, 방치할 경우 배나무가 고사되는 병이다.

이 때문에 나주 지역 과수농가들이 연일 방제에 매달리고 있으나 전염성이 강해 악재 살포시기를 놓칠 경우 종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농가들은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K(65·나주시 노연면)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흑성병 징후가 나타났으나 상당수 농가들이 방제 시기를 놓쳐 급속도로 확산된 상태다”며 “나주시 등 관계기관이 흑성병에 대한 방제 대책을 지금까지 강구하지 않은 채 피해 실태조사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이 나주시 등 관계기관 등이 흑성병 방제에 소홀, 고령자나 부녀자가 재배하는 과수원의 경우 피해 정도가 심각해 올 배나무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E(72·나주시 금천면)씨는 “흑성병이 걸을 수 없이 확산돼 수확해봐야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입장이어서 아예 올 배나무는 포기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나주 지역 과수농가의 경우 지난 4월 이상자온에 따른 착과 불량을 비롯해 이번 흑성병으로 전체 3천여 농가 가운데 절반 가량인 1500 농가가 피해를 겪고 있는 상태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담양 대숲토마토

국제 표준 규격

품질·환경 동시 인증

담양 대숲토마토 연합사업단이 지난달 28일 (주)ICR 국제 인증원으로부터 국제 표준 규격 ‘ISO 9001’(품질경영)과 ‘ISO 14001’(환경경영)을 동시에 인증받았다.

이번 토마토 분야에서 ISO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지난해 ISO 인증을 받은 딸기·멜론과 함께 담양의 ‘3대 명품 과채’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됐다.

군은 지난 3월 무정면에 있는 대숲토마토 연합사업단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 우수농산물(GAP)과 국제 규격 표준화(ISO) 인증획득을 위해 선별·유통시설을 정비하는 등 토마토 명품화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품환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딸기와 멜론에 연이어 토마토에서 ISO 인증으로 친환경 농산물 등 안심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요즘, 담양 농산물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가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옷 염색 이렇게 들여요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농촌여성 능력향상을 위한 12개 읍·면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천연염색에 대한 이론과 함께 대숲과 홍토 등을 활용한 실습이 이뤄졌다.

‘영산포 흥어’ 문화·관광상품으로 키운다

나주시, 기능성 식품·축제 지원 등 산업화

민·관·산·학 공동 ‘육성사업단’ 공식 출범

나주의 대표적 특산물인 흥어가 식품을 넘어 문화관광자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나주시는 오는 2012년까지 국비 등 30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고유 향토자원인 흥어를 명품 브랜드화 해 다양한 건강기능 식품·의약품 개발 등 산업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전자상거래와 공동 판매 구축·요리개발·흥어조합 설립·전자홍보판 설치 등도 추진하며 흥어에 대한 기능성과 효능연구·심포지엄 등도 개최한다. 또 창업·가공·요리 등과 관련된 인력 육성과 교재 개발·흥어 아카데미

개설도 주요 사업이다.

시는 또 국내 유일의 대륙등대인 영산포 등대와 30여개 밀집된 흥어 거리를 연계한 흥어축제 활성화 등 문화·관광 공간으로 육성 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흥어 산업화를 지원해 고급스럽고 다양한 맛과 남도의 멋을 만끽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으로서 흥어 이미지를 자리매김하는데도 사업 추진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 발효식품인 흥어는 나주 영산포 일대가 집산지로 30여 개 상가가 밀집돼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18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순천 화상경마장 갈수록 반발 거세다

시민단체 고소·고발 이어 시민대책위 국민감사청구

한국마사회가 순천에 개장을 추진 중인 마권 장외발매소(화상 경마장)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 등이 마사회를 고소·고발을 한데 이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지역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감사청구서에서 “농림부는 지난 2008년 12월 정부의 사행산업 전환화종합계획을 통해 화상 경마장 신규 불허방침을 수립하고 마사회에 하달했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2007년 농림

부와 한국마사회가 항후 순천 지역에 화상경마장 추진은 없을 것이라 공식 발표했음에도 재개장이 추진돼 행정 신뢰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대책위는 감사청구서에서 “농림부는 지난 2008년 12월 정부의 사행산업 전환화종합계획을 통해 화상 경마장 신규 불허방침을 수립하고 마사회에 하달했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사회의 찬성동의 서류의 허위변조와 단체명 도용 문제점, 순

천시가 마사회에 전달한 공문의 왜곡된 사용 경위 등도 감사청구 내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순천 화상경마장 국민감사청구서에는 순천 지역 시민 3만여 명이 서명한 서명부가 첨부됐다.

앞서 감사원은 시민대책위의 국민감사청구와 별도로 지난달 2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순천 장외발매소 재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난지성 웰빙과일 비파 신품종 나와

과실 크고 수확시기 조절

전남도농기원 ‘진왕’ 출원

전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소장 정병준)는 난지성 웰빙과일인 비파 신품종 ‘진왕’(사진)을 육성, 국립 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 했다.

기존 대다수의 비파 품종은 과실이 작고 단맛이 적어 상품성이

떨어지고 수확시기 또한 6월 중순에 집중돼 흉수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번에 육성된 ‘진왕’ 품종은 과실이 5~10g 더 크고 과피색이 등황색으로 상품성이 높다. 특히 수확시기가 6월 상순~7월 상순으로 기존 품종보다 2주 정도 늦은 것이 특징이다.

정병준 소장은 “신품종 ‘진왕’ 품종보호권 등록이 완료되는 대로



농가 실증시험을 통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 농가 소득증대 및 소비수요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지역에서는 완도와 장흥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50여㏊에서 비파가 재배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울촌 제Ⅱ 산단 개발 탄력

개발 계획 지경부 심의 통과

광양반권내 산업용지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울촌 제Ⅱ 산단’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광양반권 경제자유구역청(청장 최종만)은 최근 울촌 제Ⅱ 산단 개발계획(변경)이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육지부 방향 수로를 ‘워터 프

론트’(Waterfront)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호안에 20m 이상 수변공원을 조성해 산업단지 내부 완충녹지축과 연계,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울촌 제Ⅱ 산단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2002년부터 광양항 3단계 준설로 투기장으로 사용중에 있어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입권리에 대한 양도·양수협약 체결과 토지 대금에 대한 상환방법 등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다.

/동부취재본부=김청수기자 choung47@

특히 육지부 방향 수로를 ‘워터 프

GG경매컨설팅(주)

▶아파트

지역 소재지 아파트명 면적/평/㎡ 갈망가 최저가

광산구 수봉동 우미리2차 112/34 2의 1억원

148/45 297/현 1억원

158/48 1억3천 1억원

158/52 1억3천 1억원

160/32 1억3천 1억원

160/45 1억6천 1억원

160/50 1억6천 1억원

160/53 1억6천 1억원

160/56 1억6천 1억원

160/60 1억6천 1억원

160/63 1억6천 1억원

160/66 1억6천 1억원

160/69 1억6천 1억원

160/72 1억6천 1억원

160/75 1억6천 1억원

160/78 1억6천 1억원

160/81 1억6천 1억원

160/84 1억6천 1억원

160/87 1억6천 1억원

160/90 1억6천 1억원

160/93 1억6천 1억원

160/96 1억6천 1억원

160/99 1억6천 1억원

161/02 1억6천 1억원

161/05 1억6천 1억원

161/08 1억6천 1억원

161/11 1억6천 1억원

161/14 1억6천 1억원

161/17 1억6천 1억원

161/20 1억6천 1억원

161/23 1억6천 1억원

161/26 1억6천 1억원

161/29 1억6천 1억원

161/32 1억6천 1억원

161/35 1억6천 1억원

161/38 1억6천 1억원

161/41 1억6천 1억원

161/44 1억6천 1억원

161/47 1억6천 1억원

161/50 1억6천 1억원

161/53 1억6천 1억원

161/56 1억6천 1억원

161/59 1억6천 1억원

161/62 1억6천 1억원

161/65 1억6천 1억원

161/68 1억6천 1억원

161/71 1억6천 1억